

경남도, AI 로봇산업 키운다... 4900억 들여 생태계 구축

4대 전략 31개 과제 발표

휴머노이드 전문 SI기업 육성하고 AI+로봇 전문 교육센터 등 추진

경남도가 2030년까지 총 49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감속기·모터 등 핵심 부품 국산화율 70% 달성, 휴머노이드 로봇 시스템 통합(SI) 기업 등 전문 기업 40곳 육성, AI 로봇 인력 1만 2800명 양성이 골자다.

경남도는 '2030 AI 로봇 생태계 완성'을 비전으로 4대 전략·31개 과제를 담은 '로봇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조선·방산·항공·기계 등 제조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봇 실증·확산, 로봇 산업 고도화, 물류 특화 성장, 인력 양성에 나눠 투자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국산NPU 기반 초정밀 로봇 공정 지능화 실증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SDR 정밀 제조 로봇' 개발이 핵심이



휴머노이드 로봇 적용 전장배선공정 자율화 현장 이미지

/경남도

다. 정밀 전장배선(Harness) 조립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자율화 기술 개발은 2027년 착수한다. 중대재해 고위험 현장의 원격제어 로봇 인프라도 구축한다.

산업 고도화 측면에서는 국내 로봇 기업의 96.4%가 중소기업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전문 SI 기업 육

성을 2028년부터 본격화한다. 80억원을 들여 고경량·고효율 액추에이터 모듈을 자체 개발하고, 김해에 143억원 규모 '중고로봇재제조로봇리퍼센터'를 구축해 2026년 상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물류 분야는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철도 등을 잇는 트라이포트(Tri-port) 배후도시라는 입지를 활용하여 차별

화된 물류특화 서비스로봇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 특례도 지렛대다. 248억원을 들여 물류 서비스 로봇 공동 플랫폼을 2027년 완성하고, 10톤 이상 고중량 화물 이송 로봇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센터도 조성한다.

인력 양성에서는 기존 단순 로봇 조작을 가르치던 기존 직업훈련 센터의 한계를 넘어 '동남권 거점 AI+Robotization 전문 인력 양성센터'를 건립해 휴머노이드 제어·피지컬 AI·디지털 트윈 등을 교육하며 2029년 완공 후 매년 500명씩 배출할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은 핵심 제조 데이터와 실증 현장을 보유한 AI 로봇 생태계 완성의 최적지"라며 "글로벌 AI 로봇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교육환경 개선 보조사업 확정

포항시는 올해 92개 학교를 대상으로 102개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공정한 교육 기회 확대와 미래 인재 양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20일 2026년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학교 지원 사업을 심의해 총 15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확정했다.

시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진주시

1금고 농협, 2금고 경남銀 선정

경남 진주시는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는 농협은행, 2금고는 경남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 9일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두 곳이 참가했다.

차기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시 금고를 맡게 된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창원시

중기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창원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시행한다.

2024년부터 종사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지만, 재정·역량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다. 종사자 5~300인 미만 중소기업 25개소를 선정해 연말까지 기업당 5회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인종안전관리 전문 기관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취득을 목표로 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사천시

청·장년 1인 가구 실태 조사

사천시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해 3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70일간 '2026년 청·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19~64세 청·장년층 1인 가구와 해당 연령의 가구원을 포함한 위기 정보 입수 대상 가구다. 시는 필수 조사 대상 1042가구를 중심으로 기존 복지 대상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 취약계층, 복지 인적 안전망을 통해 발굴된 가구까지 포함해 조사를 진행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경북, SW기업 창업·해외진출 돕는다

청년 인재 지역 정착·사업화 지원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자금 제공

경북도는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경북 소프트웨어 성장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7일까지 참여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인재가 경북에서 창업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10개 팀 내외로, 선정된 팀에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등 창업 초기 핵심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전문가 멘토링과 법인 설



경북 SW 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립 실무 교육,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 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신청 대상은 경북 소재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교육생과 수료생, 국내외 소프트웨어 관련 경진대회 수상자, 경북 지역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등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주시, 저출산 대응 위해 단계별 지원

건강관리·정서 지원 등 통합 정책

경주시는 난임 가정부터 다자녀 가정까지 출산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확대하며 저출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다둥이 출산 가정 축하 방문 등 출산 단계별 체감형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 양육 초기까지 이어지는 출산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단편적인 출산 장려금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관리와 돌봄, 정서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는 임신 준비 단계에서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양제를 제공한다. 경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 부부에게 비타민D와 코

엔자임Q10 등 2종을 연 1회, 2개월분 지급해 임신 성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이후에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부와 영아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담과 영아 발달 관리, 양육 교육,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며, 고위험 가정은 최대 2세까지 지속 관리한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세쌍둥이 이상 또는 넷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축하 방문을 실시하고 육아용품과 격려 메시지를 전달해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경주시는 출산 가정 대상 정책 안내를 병행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 예비 유니콘 10개사 선정

고성장 기술창업기업 발굴

부산시가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고성장 유망 기업 10개사를 '2026년 유니콘(Bunicorn) 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뉴라이즌(이승욱) ▲라이브엑스(송정웅) ▲리솔(이승우) ▲소프트스퀘어드(이하늘) ▲슬래시비슬래시(정용재) ▲아이쿠카(방남진) ▲짐캐리(손진현) ▲크리스틴컴퍼니(이민봉) ▲티큐어(강현욱) ▲해양드론 기술(황의철) 등으로, 부산시는 이들이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장 맞춤형 지원



을 할 예정이다. '부니콘(Bunicorn)'은 부산(Busan)과 유니콘(Unicorn)의 합성어로, 성장 잠재력이 입증된 고성장 기술창업 기업을 발굴해 기존의 분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을 집중 투입해 부산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부산형 창업 지원 브랜드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소상공인 창업 거점 만든다

'로컬창업 타운 유치' 공모 선정

울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고유 자원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에서 성장·확장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로컬창업 타운은 지역의 유류자산을 활용해 로컬 창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소상공인 핵심 거점 공간이다. 창업 준비부터 교육·컨설팅, 사업화, 판로 지원, 투자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 역할을 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울산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설 구축·운영을 맡는 중앙-지방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타운은 남구 삼산동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1층 다목적시설에 들어선다.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주방, 미디어 작업실, 휴게공간 등을 갖춘 공유형 창업 공간으로 조성된다. 신축 건물을 활용해 초기 구축 비용을 줄이고 즉시 운영이 가능하며 대규모 공영주차장과 연계된 접근성, 공원·광장과 연결된 개방형 입지가 강점이다.

울산시는 이 공간을 단순 사무공간이 아닌 지역 자원과 IT,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거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